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자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자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자 |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자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자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자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자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연중 제23주일(9월 10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마태 18,15-20)



### 기도하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그쳐 바쳤던 아침, 저녁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은 신앙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9. 7.)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 믿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마태 18,15)

누군가의 미움이 울컥하는 화를 치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 봅시다.

†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20)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도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절도범에서 새로운 삶을, 인생을 열어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움을 위해서 거리를 매일 몇 시간씩 청소를 하시던 분이시죠. 새롭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범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생각해도 흥분되어, 오랫동안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매번 흥분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절도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

쁜 일도 밥을 먹듯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체포되어 분당 수정구에 있는 경찰서에 한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취조 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착함’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는 절도 행각을 멈추고 8년 전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발적으로 길거리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삶에 대한 참회이자, 앞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기 위한 경계에서 자신의 품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충고도 필요하고 죄인의 교정에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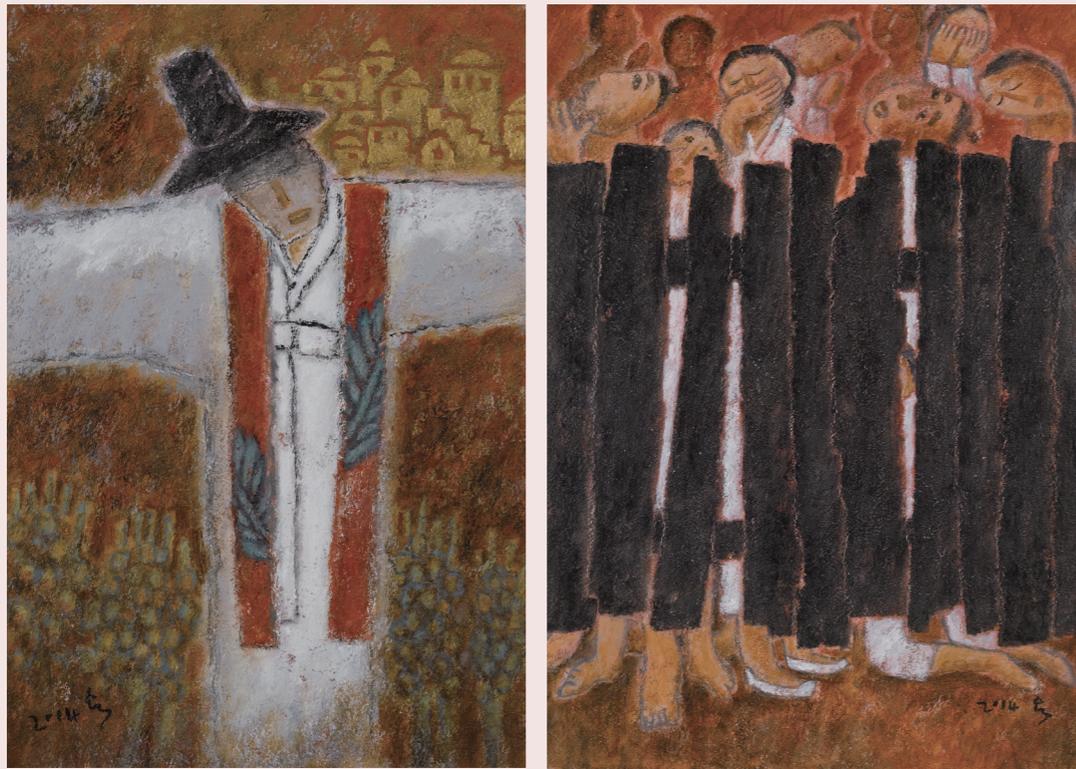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 믿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경축 이동(9월 17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6)



**순교자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

어지신 주교 신부 웃으며 칼을 받고      겨레의 선열들이 기꺼이 쓰러졌다  
 피꽃을 몸에 피워 천당에 올랐어라      찰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어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성무일도 아침기도 찬미가 중에서)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9. 21.)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  
 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루카 9,26)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는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겨울 우리 교회의 어른이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우리 사회를 이끈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빈소가 차려진 명동성당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명동의 기적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그분이 가시는 길을 마지막이라도 보고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단 몇 초 그분의 주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왔습니다. 몇 초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을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삶이 이 이유를 말해줍니다. 결국 하느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분의 삶이 그분을 드높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에게나 눈물 흘려주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눈물 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순교자들도 그분의 삶이 있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부활을 희망하며

## 상평동 3구역장 조말녀 만나

상평동성당은 1977년 3월 15일 옥봉동성당에서 분가하여 1978년 10월 16일 건립 후,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산교구 진주지구 2지역에 속해있으며 문산, 장재동성당 다음으로 오래된 성당입니다.



1986년 신자 수 증가로 인해 4월 23일을 기점으로 하대동, 금산, 가좌동성당으로 나뉘어 분가되었습니다. 예전 상평동성당은 8구역이 있으나 현재는 5구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1구역에서 4구역은 상평동 관할 구역이고, 5구역은 기타구역으로 관할 구역 외 신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평동 가까운 곳에 혁신도시가 신설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는 떠나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공동체의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3구역 3반은 아파트단지 내 신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40가구의 신자분들 중,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세대는 15가구 미만입니다. 하지만 자매님들로 구성되어 전례 협조, 본당의 날 행사, 청소, 성사표 전달 등 본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공동체는 각 가정을 돌아가며 복음나누기 7단계로 시작을 하여 한 달 동안 살아온 삶을 나누며, 신앙생활에 드리워진 어둠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 돌보기, 병자방문, 냉담자 방문, 본당 활동, 나누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코로나 이후 모든 활동이 중단되면서 열정은 식어버렸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언제쯤이면 건강하고 활발한 소공동체 생활이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서서히 힘을 내보려 합니다. 부러진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상처에 흔적이 남아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 듭니다. 그때 그 시절의 활발한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부활 되기를 바랍니다.

## 「교회는 전례 거행의 장소가 필요한가?」

“영과 진리 안에서”(요한 4,24)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어느 한 특정 장소에만 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전체를 성령의 활동으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하느님의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백성은 지상 조건 때문에 전례 거행을 위하여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 해설

전례 거행을 위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 박해시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형편을 상상해 보면 금방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그 지역에 살아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교회를 나타낸다.

### 용어

#### 영과 진리 안에서

요한 4,24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영적으로 참되게”라고 번역하였다. 하느님은 어느 장소에 매이지 않음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생수가 솟아 나오는 영적인 성전이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살아 있는 하느님의 성전’(2코린 6,16)이다”

## 「성당은 무엇인가?」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교회의 상징일 뿐 아니라 천상 예루살렘의 표상이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교회가 성찬례를 거행하고 감실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기도의 장소이다.

### 해설

“기도의 집은 성찬례가 거행되고, 성체가 보존되어 있으며, 신자들이 모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단에서 봉헌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들의 현존을 공경하며 신자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므로 아름다워야 하고 기도와 장엄한 성사에 알맞아야 한다.”(사제 생활 교령, 5항)

### 용어

#### 성당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다. 교회 건물을 이렇게 부른다.

#### 천상 예루살렘의 표상

구약의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신약의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하느님 집을 가리킨다.(히브 12,22; 묵시 21장). 교회(성당)는 이 천상 예루살렘을 이 세상에서 미리 보여 주는 표상이 된다.

\*한님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